



하루에 하나



2026.6.29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38.0원 (-7.0원)

KOSPI

8,411.21 (-519.09, -5.81%)

KOSDAQ

851.37(-36.44, -4.10%)

국고채 10년 금리

4.117(-0.027%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7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순환매의 조건: 이익과 유가 그리고 금리 [이재만]
 3분기 중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중국 구도 고찰과 미래(CXMT) · 실력(창업판) · 약점(홍콩) [김경환]

기업분석

오리온 리가캠바이오 1,250억원 추가 투자 공시 [심은주]
 아이비전웍스 IPO 주관사 업데이트: 신규 수주와 실적 반등이 필요 [한유건]
 이노시물레이션 IPO 주관사 업데이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기대 [한유건]
 쿠콘 MCP마켓플레이스와 글로벌 페이로 여는 신사업 [권태우]
 현대로템 2Q26 프리뷰: 기대치 부합. 주가는 다시 박스권 하단 [채운샘]

Weekly

은행 7월 금리모멘텀과 실적모멘텀 부각 예상 [최정욱]
 철강금속 Mysteel, 2H26 리튬가격 전약후강(前弱後強) 전망 [박성봉]
 반도체 및 소부장 스마트폰 수요 우려는 예견된 수순 [김록호]
 에너지/화학 Dubai의 상대적 약세와 윤활기유 Shortage [윤재성]
 2차전지 셀 메이커 흑자 전환 [김현수]
 디지털자산 토큰화 주식, 하반기 메가 트렌드 예상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Tech&Stock Weekly 퀄컴 Investor Day 2026, 모바일을 넘어 AI 컴퓨트 폴스택 기업으로 [김재임, 김시현]
 Hana China Weekly 중국, 나트륨이온 배터리 대량 양산 초기 단계 진입 [백승혜]
 HANA US Weekly AI 반도체 변동성 확대는 풀림의 해소 과정 [강재규]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한화오션, 삼양식품, 대덕전자, 세방전지, 리가캠바이오, 파마리서치, 코스메카코리아

2026년 6월 29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7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순환매의 조건: 이익과 유가 그리고 금리

지난 6/1일 발간 자료를 통해 제시한 코스피 예상 상단은 2027년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 890조원*(2010년 이후 평균) PER 9.9배를 적용한 10,450p이었다. 현재 2027년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 946조원으로 동일한 PER을 적용해도 예상 상단은 11,450p로 높아질 수 있다. 코스피의 최근 20일 이격도 저점은 6월 초 연준(Fed)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됐던 당시 94%였고, 이를 현재 코스피에 적용 시 저점은 7,900p다. 2026년 이전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 직전 수준으로의 회복 기간은 평균 32거래일, 2026년 이후 5~6거래일로 단축됐다

2026년 S&P500 M7(YTD +2%) 보다는 Non M7(+14%)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 2025년 S&P500 M7의 순이익 증가율 26%에서 26년 44%까지 높아진다. Non M7의 순이익 증가율은 9%에서 39%로 급등하면서 M7과의 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순환매의 조건은 이익 증가율 격차 축소다.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이익 증가율 570%과 410%, 27년은 33%와 3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기업들의 경우 64%에서 18%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을 기반으로 한 순환매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으로 WTI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다. WTI 가격 70달러 수준에서 영업이익률을 추정치 상향 조정 기반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은 업종은 S&P500 은행, S/W와 코스피 제약/바이오, S/W다. 2026년 S&P500 S/W와 코스피 제약/바이오, S/W 주가 부진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 하락과 같이 봐야 하는 변수는 미국 시중금리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실질금리(성장률)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반영해 현재 4.4%로 미국과 이란 전쟁 발생 이전 수준(3.9%) 보다 높다. 2023년 연준 기준금리 인상 이후 동결 국면인 7~10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본드 텐트럼이 발생했다. 당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매출 보다는 순이익, 순이익 보다는 FCF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업종의 주가가 이전 고점을 빠르게 회복하며 주도 업종으로 복귀했다.

1999년(현재와 비슷한 Tech 투자 성장 국면) 하반기 연준은 총 3회 기준금리 인상, 시중금리는 상승했다. 주가 상승 업종과 종목 수는 감소했다. 이익 모멘텀 강화 여부를 기반으로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차별적인 강세를 보였고, 성장주 내에서는 수익성이 높거나 높아지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였다. 지금도 고금리 수준 유지를 고려할 경우 기업 선별이 중요하다. ① 2026년 순이익 보다는 FCF 증가율이 높고, ② 이익 모멘텀 기반으로 성장주에 포함될 수 있고(2분기와 3분기 QoQ 순이익 증가율 높은 기업), ③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1분기~3분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

S&P500: 엔비디아, 마이크론테크놀로지, AMD, 존슨앤드존슨, 캐터필라, KLA, 샌디스크, 시케이트, 인튜이티브서지컬 등.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LG이노텍,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대덕전자, 한미약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RA 손일수 ilsooson@hanafn.com

중국 구도 고찰과 미래(CXMT) · 실력(창업판) · 약점(홍콩)

3분기 중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 2026.06.29



중국/신흥국 투자전략 김경환 khstyle11@hanafn.com

중국 분석 김성은 seongeunk@hanafn.com

중국 구도 고찰과 미래(CXMT) · 실력(창업판) · 약점(홍콩)

- [3/4분기 구도] 성장과 가격 상승 양극화, 수출과 공급망 호황으로 내수 부양은 소극적
- 상반기 중국 주가와 장기금리의 극단적인 괴리는 신경제의 희망과 구조적인 신용 축소를 동시에 시사했다. 본격적인 리플레이션 사이클은 전반전에 진입했으나, 수출과 공급망의 구조적인 호황과 내수 침체 연장의 대비가 당초 예상을 상회한다. 수출 호황과 명목GDP 상승 효과로 인해 상반기 내수 부양책은 여전히 소극적이며 3/4분기에도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 글로벌 자본재 사이클 수혜와 공급망 경쟁력 확인이 긍정적이지만, 대외 노출도 상승이 하반기 정책 난이도와 주도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중국 유동성의 주식 시장 이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AI 투자 확장과 상업화 방식은 미국과 다른 '가성비' 모델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 [5대 자산 점검] 하반기 중국 주식과 환율 가치 상승 구간은 길고, 채권과 원자재 강세는 짧을것
- 하반기 전망 가시성·상승 확률 측면에서 주식>환율>원자재>부동산>채권 순으로 예상한다. ①중국 주가는 하반기 강세 근거와 펀더멘털 방향성이 주요 자산 중에서 여전히 가장 명확하다. ②중국 장기금리는 하반기 구조적인 하락세가 중단되고 순환적인 되돌림이 예상된다. 다만, 내수와 신용 사이클 불확실성으로 상단도 제한적이다. ③위안화는 25년 이후 강세 기초가 연장될 전망이다. 구조적-순환적인 강세 요인은 내부에 있으며, 연말 예상 환율은 6.55위안 수준이다. ④주책 가격은 1-2선 도시 중심으로 장기 저점을 탈출할 전망이다. ⑤중국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 반등이 재개될 것이나 전통-신흥 품목의 괴리는 여전히 클 전망이다.
- [미래 · 실력 · 약점] 3대 테크 지수로 보는 중국의 미래(CXMT), 실력(창업판), 약점(홍콩)
- 2025년 이후 중화권 3대 테크 지수(창업판/과창50/항생테크)에 대해 높아진 관심은 K자형 성장 구도, 기술자립과 공급망 우위, 로컬-외국인의 시각 차를 반영한다. 우리는 각 지수의 특징과 모멘텀을 통해 하반기 투자 전략을 다시 정리했다. **첫째**, CXMT 상장과 과창50지수는 중국 미래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상징한다. 하반기 CXMT와 YMTC 상장은 중국 반도체 국산화의 이정표이자 재평가를 시사하며, 밸류체인의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과창50지수는 대규모 IPO를 통해 고평가 부담이 점차 해소되고 미래 산업의 가치를 더 복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둘째**, 창업판(ChiNext)은 중국 공급망의 진짜 실력을 반영한다. 중국 수출의 구조적인 경쟁력(품목 고도화/지역 다변화)과 가격 상승, 자본재 확장 사이클의 수혜를 창업판 대형주가 가장 극적으로 반영한다. 2027년까지 중화권 주요 지수 중에서 실적 상향 조정 확률이 가장 높고,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도 가장 크다. **셋째**, 홍콩 증시의 상반기 부진은 중국의 구조적인 약점(내수/신용 사이클 하락)과 대외 노출도(미국 금리/글로벌 유동성)가 극대화된 결과이다. 하반기 실적 보다는 유동성과 수급 회복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 [투자 전략] 매크로와 정책 배팅 시기상조, 중국 투자는 ChiNext(자본재)와 과창50(반도체) 계속 집중
- 3/4분기 대외 환경과 정책 동기 측면에서 중국 매크로와 부양책 배팅은 여전히 시기상조이며, 가격 상승 분야와 실적/공급 이벤트를 먼저 주목한다. 7-8월 실적 시즌은 수출 밸류체인(자본재/전자/에너지), 반내권(비철/화학/전력장비), 서비스업(외식/여행) 분야의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중화권 증시는 3/4분기 실적과 수급 우위를 가진 본토 ChiNext와 과창50지수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 내수 업종은 3/4분기 부동산과 백주 업종 주가가 장기 침체 탈출 여부의 바로미터이다.

2026년 6월 29일 | 기업분석_Update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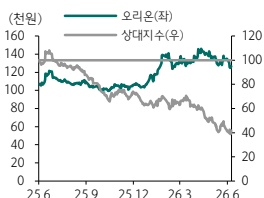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220,000원
현재주가(6.26) 126,4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411.21
52주 최고/최저(원)	146,000/99,300
시가총액(십억원)	4,997.4
시가총액비중(%)	0.07
발행주식수(천주)	39,528.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5.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5.5
외국인지분율(%)	38.75
주요주주 지분율(%)	
오리온홀딩스 외 9인	43.81
국민연금공단	9.1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747.0	4,000.9
영업이익(십억원)	650.8	704.2
순이익(십억원)	490.4	535.7
EPS(원)	12,240	13,385
BPS(원)	104,083	113,01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104.3	3,332.4	3,747.3	4,057.8
영업이익	543.6	558.3	661.0	740.0
세전이익	692.2	546.6	697.1	780.1
순이익	524.6	382.7	497.1	568.1
EPS	13,269	9,680	12,574	14,372
증감율	39.28	(27.05)	29.90	14.30
PER	7.72	10.92	9.93	8.68
PBR	1.17	1.10	1.18	1.08
EV/EBITDA	4.37	4.15	4.77	4.03
ROE	16.57	10.51	12.46	12.99
BPS	87,814	96,349	105,442	115,816
DPS	2,500	3,500	4,000	4,4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오리온 (271560)**리가캠바이오 1,250억원 추가 투자 공시****리가캠바이오 1,250억원 추가 투자 공시**

지난 금요일 오리온의 종속회사 팬오리온이 리가캠바이오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공시했다. 리가캠바이오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오리온 그룹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다. 리가캠바이오는 전환우선주(CPS) 3,300억원과 전환사채(CB) 1,700억원을 발행하는데, 오리온은 팬오리온을 통해 전환우선주 825억원 및 전환사채 425억원을 투자한다. 합산 투자 금액은 1,250억원으로 기존 지분율인 25.5% 선에서 최종 투자 규모가 합의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종산업 투자 아쉬워, 주주들의 배당 확대 명분 커질 듯

2024년 4월, 팬오리온은 리가캠바이오 지분 25.7%를 약 5,40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식품 업체와의 제한적 시너지 및 단기 이익 가시성 저하 측면에서 주가는 큰 폭 하락했다. 약 2년 만에 추가 투자가 결정된 셈인 만큼, 주주들의 배당 확대 명분 또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료/담배 섹터 내에서 배당 여력이 가장 높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오리온의 평균 배당 성향은 2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실체스터 인터내셔널(Silchester International)'이 5% 이상 지분 공시를 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실체스터 인터내셔널(Silchester International)'은 과거 일본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 및 지방은행 대상으로 주주환원 강화를 요구한 경험이 있다.

2분기 호실적 기대

2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8,643억원(YoY 11.2%), 1,390억원(YoY 14.4%)으로 추정한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4~5월 누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037억원(YoY 12.9%), 936억원(YoY 6.1%)을 시현했다. 4~5월 누계 국가별 매출 성장률은 각각 국내 YoY 0.1%/ 중국 YoY 21.9%/ 베트남 13.9%/ 러시아 24.5%를 기록했다. 로컬 통화 기준 성장률은 각각 중국 YoY 10%/ 베트남 YoY 10%/ 러시아 YoY 9% 추산된다. 4~5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간식 채널을 중심으로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위안화 강세도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전쟁 기인한 부정적 영향(유틸리티, 부자재 등 비용 상승)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 06월 26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6.26)

92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87.81
52주 최고/최저(원)	1,936/880
시가총액(억원)	317.0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34,456.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72.0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8.8
외국인지분율(%)	1.89
주요주주 지분율(%)	
김기재 외 2인	31.44
나인테크	16.8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억원)	N/A	N/A
영업이익(억원)	N/A	N/A
순이익(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80	232	352	230
영업이익	19	28	24	(4)
세전이익	4	26	(46)	(3)
순이익	4	27	(46)	(4)
EPS	13	82	(135)	(11)
증감율	(43.5)	530.8	적전	±적지
PER	0.0	0.0	(7.7)	(115.8)
PBR	0.0	0.0	1.0	1.2
EV/EBITDA	0.0	0.0	0.0	0.0
ROE	14.9	14.9	(12.8)	(1.1)
BPS	87	530	1,065	1,055
DPS	0	0	0	0



Analyst 한유건 hyg0619@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아이비전웍스 (469750)**IPO 주관사 업데이트: 신규 수주와 실적 반등이 필요****머신 비전 전문 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성장 계획**

아이비전웍스는 2015년 설립된 2차전지 전공정(전극, 조립, 모듈) 머신 비전 검사 시스템 개발 업체이다. 2019년 2차전지 머신 비전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며, 2020년부터 이차전지 제조사 수주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성장을 개시했다. 이후 검사시스템 자체 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했고, 국내외 2차전지 제조사 검사 시스템 납품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이차전지 업황 둔화 및 투자 지연으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장비 고도화 및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ESS 향 장비 포트폴리오를 견고히 구축하여 산업 저변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025년 기준 2차전지 검사장비 매출 비중이 95%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나, 2027년까지 2차전지 매출의 비중을 50%까지 낮춰 특정 산업 리스크를 완화하고, 신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크랙 결함 검출 특허 출원

동사는 유리기판 마이크로 크랙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광학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광학 기술은 유리기판의 유리관통전극(TGV) 홀 가공 이후 잔존 마이크로 크랙을 1차로 검사하고 도금 공정 후 2차 검사까지 적용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고객사와 장비의 개발 및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리기판 검사 장비와 관련된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검사 시스템은 파일럿 장비 납품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리기판 검사 시스템을 비롯하여 웨이퍼 외관 검사기, 자동차 조립 라인 부품 검사 및 기존 진행 중인 ESS 외관 검사 등의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고객사 및 추가 수주 여부가 중요

아이비전웍스의 2025년 매출액은 230억원 (YoY-34.6%), 영업손실 3.9억원(YoY 적자전환을 기록했다. 2025년 외형 축소는 2차전지 전방 시장 둔화, 정책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객사 투자 집행 지연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동사의 경우 이차전지 검사장비 관련 해외 고객사를 일부 보유하고 있어 적자 폭은 Peer대비 양호한 기초가 유지될 전망이며, 해외 고객사 비중 확대 노력의 성과도 기대됨에 따라 2차전지 부문의 실적 반등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 2차전지 검사장비 향 신규 해외 고객사 확보 및 신규 수주 여부가 턴어라운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약 65.4억원이다.

2026년 06월 29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6.26) 2,33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87.81
52주 최고/최저(원)	5,220/2,215
시가총액(억원)	211.7
시가총액비중(%)	0.00
발행주식수(천주)	9,086.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2.5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0.8
외국인지분율(%)	2.02
주요주주 지분율(%)	
조직원 외 8 인	23.70
인라이트벤처스 외 4 인	10.9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억원)	N/A	N/A
영업이익(억원)	N/A	N/A
순이익(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64	195	93	143
영업이익	(18)	(2)	(48)	(20)
세전이익	(32)	(11)	(60)	(23)
순이익	(39)	(2)	(66)	(21)
EPS	(582)	(34)	(841)	(244)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0.0	(492.9)	(5.3)	(17.2)
PBR	0.0	4.6	1.6	1.3
EV/EBITDA	0.0	23.7	0.0	0.0
ROE	(25.8)	(0.9)	(29.9)	(6.9)
BPS	2,173	3,647	2,808	3,320
DPS	0	0	0	0

Analyst 한유건 hyg0617@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이노시물레이션 (274400)

IPO주관사 업데이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기대

방산/모빌리티 XR 솔루션 전문 기업

이노시물레이션은 2023년 7월 상장된 XR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훈련 솔루션(Virtual Training)과 자율주행 기술 안정성 및 신뢰성 평가 시스템 스마트모빌리티 시뮬레이터(Virtual Testing) 사업을 영위한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KAI, 완성차업체 및 부품 업체들이며 2025년 말 기준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가상훈련 71%, 스마트모빌리티 29%이다.

가상훈련 솔루션: 구조적 성장 전망

가상훈련 시스템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기술을 고도화하여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디지털로 구축하고, 직무 교육 및 안전 훈련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과거 단순 시뮬레이션 수준에 그쳤던 가상훈련은 최근 디지털 트윈(DX) 기술 및 피지컬 AI와 결합하면서 전방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XR 가상훈련 시스템은 실제 고위험/고비용 훈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체가 가능해 방산·우주·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복합 전술환경 훈련, 도입 장비의 고도화, 플랫폼 증가에 따라 주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국내 주요 고객사의 K9 자주포, K2 전차, TA-50 항공시뮬레이터에 Spec-in 되어 다수의 국방 수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민수, 철도, 중장비, 차량 자율주행 검증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육군, 해군, 공군, 특전사 등 다양한 특수전술훈련, 조종 및 지휘통제, 손상통제, 상황조치 등 다양한 XR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소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직접 솔루션 수출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K-방산 수요 증가와 글로벌 XR 훈련시스템 수요 확대됨에 따라 동사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며, 2026년 1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약 184억원을 보유 중이다.

캐나다 CPSP 프로젝트 수주 시 수혜 가능

현재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두고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경쟁 중이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잠수함 12척 규모로 사업 규모는 유지보수, 운영 등 포함하여 총 60조원에 달한다. 캐나다 국방부의 CPSP 핵심 요구 조건 중 하나가 '즉각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 시설 및 시뮬레이터 완비'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수주를 성공할 경우 디지털 트윈 기반 XR 가상훈련 시스템을 보유한 동사의 낙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또한 수주 이후에도 지속적인 XR 소프트웨어와 MRO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사의 중장기 매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2026년 매출 증가, 적자 감소 전망

2026년 이노시물레이션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188억원(YoY+20.0%), 영업손실 7억원(YoY 적자축소)으로 적자 폭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XR 가상훈련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도입에 발맞춰 무기의 무인화가 트렌드인 만큼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XR 솔루션의 초기 개발 대비 낮은 비용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성공 시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06월 29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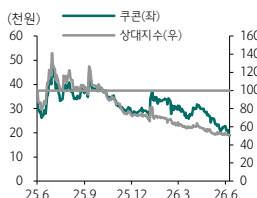
현재주가(6.26) 18,9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87.81
52주 최고/최저(원)	48,800/18,950
시가총액(십억원)	191.2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10,09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3.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9
외국인지분율(%)	3.66
주요주주 지분율(%)	
위피앤씨 외 10인	30.89
장영환 외 4인	6.1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63	68	73	69
영업이익	20	17	17	19
세전이익	6	10	19	26
순이익	5	7	16	21
EPS	484	700	1,538	2,105
증감율	(32.96)	44.63	119.71	36.87
PER	67.60	28.80	10.58	13.49
PBR	2.56	1.57	1.13	1.67
EV/EBITDA	10.63	6.16	2.76	6.23
ROE	3.78	5.55	11.48	13.54
BPS	12,804	12,867	14,437	17,001
DPS	(57.2)	(56.8)	(72.6)	(80.1)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쿠콘 (294570)**MCP 마켓플레이스와 글로벌 페이로 여는 신사업****비즈니스 데이터 API 플랫폼, 신사업으로 성장축 전환**

쿠콘은 다수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해 API 형태로 공급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2006년 웹케시그룹에서 분사해 설립됐고,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국내외 2,500여 제휴 기관에서 5만여 종의 데이터를 취합해 300여 종의 API 상품으로 가공하며, 자사 플랫폼 쿠콘닷넷을 통해 은행·증권·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빅테크·공공기관·일반기업에 공급한다. 사업은 개인·기업 정보와 시세를 다루는 데이터, 결제·정산을 담당하는 페이먼트로 나뉘며, AI 기반 데이터 사업·글로벌 결제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데이터 서비스, MCP 마켓플레이스로 여는 AI 데이터 사업

데이터 부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7월 초 쿠콘닷넷 리뉴얼과 MCP 전용 데이터 API 마켓플레이스다. MCP(Model Context Protocol)는 AI 에이전트가 외부 데이터를 표준 방식으로 호출하는 개방형 규약으로, 도입이 확대될수록 데이터를 API로 공급하는 쿠콘이 직접 수혜를 입는다. AI 에이전트는 한 작업에 복수의 API를 호출해 호출량이 늘고, MCP 상품은 보안·표준화 가치가 더해져 기존 API보다 단가가 높다. 호출량과 단가가 함께 오르는 구조다. 국내 200여 개 은행을 고객으로 둔 만큼, 기존 API를 MCP로 전환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데이터 API 사업자의 MCP 도입이 활발하다. 글로벌 데이터 API 기업 Plaid가 2년 연평균 30%대 성장한 점은 AI 시대 데이터 수요 확대를 방증한다.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쿠콘의 MCP 전환도 데이터 사업의 외형·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페이먼트 서비스, 보유 결제 인프라의 해외 확장

페이먼트 부문의 동력은 보유 결제망을 해외 수요와 잇는 크로스보더 전략이다. 쿠콘은 QR 가맹점 200만곳, ATM 4만대, 프랜차이즈 10만곳을 갖췄고, QR망을 독자 보유한 게 차별점이다. 인바운드는 진행 중이다. 유니온페이·위챗페이·알리페이 등 20개국 50개 결제사와 제휴했고, 4월 인도네시아 표준 QR(QRIS)과 연동해 외국인이 환전 없이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도록 했다. 아웃바운드는 싱가포르 법인이 거점이다. 통합형 전자금융 라이선스를 준비 중이며, 취득 시 현지 결제사와 직접 연결해 수익 배분율을 높이는 구조로 2028년 본격화를 목표로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3분기 내 자체 간편결제 월렛으로 달러 결제를 시범 출시하며, 원화는 제도화 이후 추진한다. 솔라나 재단과 맺은 결제 인프라 협약과 발행·소각·온체인 연동 특허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별개로 AI 에이전트 결제 영역에서도 리눅스 재단 산하 에이전트 AI 재단(AAIF)에 실버 멤버로 합류해 워킹그룹에 참여 중이다.

신사업으로 넘어서는 전환의 원년

2026년 매출액 746억원(+7.5% YoY), 영업이익 210억원(+11.2% YoY, OPM 28.1%)으로 전망한다. 주주환원도 강화된다. 배당은 전년(주당 300원) 대비 대폭 확대를 목표로 하며 중간 배당도 검토 중이고, 자사주 매입·소각도 병행할 계획이다. 순현금이 약 1,200억원에 달해 전략적 M&A 역시 상시 추진하고 있다. 신사업의 실적 기여는 2027년 중반으로 예상되며, 가시화될 경우 전사 매출이 900억원 이상 기대되는 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6년 6월 29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83,000원
현재주가(6.26) 169,8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411.21
52주 최고/최저(원)	269,000/168,900
시가총액(십억원)	18,532.4
시가총액비중(%)	0.27
발행주식수(천주)	109,142.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82.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9.6
외국인지분율(%)	37.44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3인	33.77
국민연금공단	8.0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912.8	8,130.4
영업이익(십억원)	1,158.5	1,559.7
순이익(십억원)	934.4	1,249.1
EPS(원)	8,546	11,424
BPS(원)	36,118	47,110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376.6	5,839.0	6,854.8	7,427.7
영업이익	456.6	1,005.6	1,180.5	1,293.2
세전이익	509.6	1,004.3	1,330.1	1,375.0
순이익	406.9	769.9	1,009.3	1,047.4
EPS	3,728	7,055	9,248	9,597
증감율	152.75	89.24	31.08	3.77
PER	13.33	26.63	18.36	17.69
PBR	2.65	6.66	4.60	3.70
EV/EBITDA	9.87	18.14	16.80	14.82
ROE	21.85	30.05	28.40	23.18
BPS	18,737	28,211	36,902	45,899
DPS	200	600	600	780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현대로템 (064350)

2Q26 프리뷰: 기대치 부합. 주가는 다시 박스권 하단

목표주가 283,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현대로템 목표주가 283,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폴란드형 K2 2차 계약 양산 매출 인식을 중심으로 디펜스솔루션 부문의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사의 주가는 2025년 하반기 이후 16.5만원~28.2만원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다. 이는 Fwd PER 기준 18배~28배에 해당하는 범위이다. 현재 주가는 다시 하단 Fwd PER 18배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국내 방산 5사 중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특정 섹터 위주의 주가 상승이 지속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방산 섹터 내에서 두드러진 저평가 현상은 결국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 있다. 디펜스솔루션 부문의 수주잔고는 약 10조원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실적 성장에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납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2027년 2분기까지 가시적인 방산 수출 성과를 확보해야 단기 실적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동 수주 파이프라인은 수주 가능성보다는 시점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2Q26 영업이익 2,882억원(YoY +11.9%)으로 컨센서스 부합 전망

2분기 매출액은 1.7조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일솔루션과 에코플랜트 부문의 수주잔고는 각각 18.5조원, 0.8조원이며 매출인식률은 2.9%, 19.0%로 가정했다. 핵심 사업부인 디펜스솔루션 매출액은 1.0조원으로 전년대비 31.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폴란드형 K2 전차 2차 양산의 매출 인식이 확대에 기인한다. 영업이익은 2,882억원, 영업이익률은 17.0%로 각각 전년대비 11.9% 증가, 1.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폴란드 K2 전차 2차 양산 사업의 수익성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루마니아 전차 사업은 아직 진척 내용 없고 여전히 현재진행형

루마니아 전차 사업은 약 9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이라크, 페루 사업과 더불어 현대로템의 중요한 수주 모멘텀 중 하나이다. 2025년 9월 루마니아 국방부가 의회에 사업 승인 요청을 제출하면서 사업이 공식화됐고 지난 1월 EU SAFE 대출 대상 프로젝트 목록에서는 전차 사업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EU SAFE 대출 사용 시 현지 생산 조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동사의 수주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아직 구체적으로 진척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 루마니아는 후보 전차군을 지속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루마니아는 Rheinmetall과 57억유로 규모의 전투차량, 방공체계, 탄약 등 현지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EU SAFE 대출을 활용한 이번 계약으로 Rheinmetall이 루마니아 내 현지 생산 네트워크를 선점하면서 전차 사업까지 독일 업체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해당 사업들과 전차 사업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7월 금리모멘텀과 실적모멘텀 부각 예상



은행 Weekly | 2026.6.29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은행주 소폭 초과하락. KOSPI 급락시 덜 빠지고 급등시에는 덜 오르는 양상. 수급상 특징은 개인들이 은행주 매수에 가담

- 전주 은행주는 8.5% 하락해 KOSPI 하락률 7.1%보다는 소폭 초과하락했다. 반도체 업종의 주가 변동성 확대로 KOSPI도 큰폭의 롤러코스터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주는 KOSPI 급락시 덜 빠지고 급등시에는 덜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급상 특징적인 요인은 외국인인 KOSPI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는 거의 순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폭 은행주 매수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주간 단위 은행주에 대한 2,000억원에 가까운 순매수는 몇개월내 처음 발생했다
-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이란과의 종전 기대감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큰폭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와 더불어 그동안 금리가 큰폭 상승한데 따른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났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8%로 임계점으로 인식되던 4.5%를 크게 하회하며 한주간 8bp 하락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4.10%로 8bp 하락했다
- 지난주 외국인은 KOSPI를 21.2조원이나 대량 순매도한 반면 은행주는 30억원 순매도에 그쳐 은행주 매도는 거의 없었으며, 국내 기관은 KOSPI를 3.8조원 순매도한 가운데 은행주도 2,000억원을 순매도했다. 현재 KB금융만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최근 국내 기관은 이전과 달리 은행주를 순매도로 대응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주 KOSPI를 약 24.3조원 순매수한 가운데 은행주도 1,840억원을 순매수해 은행주 순매수세 전환이 특이점이었다

카카오뱅크의 캐피탈사 인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없는 라이선스 인수로 이해. 사업영역 확장 기대 커지겠지만 수익화 지켜보아

- 6월 25일 카카오뱅크는 마스틴캐피탈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마스틴캐피탈의 2025년말 총자산은 524억원(대출채권 296억원, 금융리스자산 141억원), 총자본은 211억원. 2025년 연간 실적은 -2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인수가격은 241억원으로 6월말 총자본이 2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PBR 기준 약 1.2배에 인수한 셈이다
-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240억원 정도에 캐피탈사 License를 산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적격성 이슈로 인해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현재 신용카드의 경우 라이선스 취득 지연으로 제휴신용카드 서비스만 실시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없는 M&A를 통한 자회사 편입이 대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틴캐피탈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자회사로 편입시 조달비용 하락 효과가 기대되지만 2025년말 기준 장기차입금이 159억원에 불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카카오뱅크는 캐피탈사 인수로 오토론 진출 등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플랫폼 관련 수익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어느정도의 규모로 수익화될지의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거 라이선스만 인수해서 자본을 추가 투자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다른 금융사들의 경우 의미있는 개선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카카오뱅크의 고객 기반과 플랫폼 경쟁력은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이기도 하다

금년에는 과연 업종간 순환매가 없을까? 은행주는 주도업종 밖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 7월 금리와 실적 모멘텀 기대

-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 반도체 등 주도업종이 조정을 받을 경우에도 업종간 순환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승시 주도업종만 상승하고 조정시 다같이 하락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반도체업종의 이익증가율이 타업종대비 워낙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업종의 이익증가율이 양에 차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가 꺾이면 장은 아예 없다는 인식이 주요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은행주의 경우 피벗 국면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예상되는 7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금리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7월말 어닝시즌에서도 KB금융, 신한지주를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 주도업종 밖에서는 관심을 가장 높여야 할 업종으로 판단한다.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익증가율이 반도체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업종 풀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보완주를 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현 은행 평균 PER은 약 7배 수준이다

금주 은행 주간 선호 종목으로 KB금융(매수/TP 220,000원)과 신한지주(매수/TP 135,000원)를 제시

Mysteel, 2H26 리튬가격 전약후강(前弱後強) 전망

철강금속 Weekly | 2026.06.29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주간 동향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

- 국내 철강가격(원/톤)
열연 유통가: 96만원(WoW, 0.0%), 열연 수입유통가: 91만원(WoW, 0.0%), 철근 유통가: 87.5만원(WoW, -0.6%), 후판 유통가: 100만원(WoW, +2.0%)
 - 해외 철강가격(달러/숏톤, 위안/톤) (1 Short Ton=907kg)*
미국 열연 유통가: 1,100달러(WoW, 0.0%), 중국 열연 유통가: 3,328위안(WoW, -1.1%), 중국 냉연 유통가: 3,804위안(WoW, -0.4%), 중국 철근 유통가: 3,253위안(WoW, -0.8%)
 - 원재료 가격(달러/톤, 원/톤, 달러/톤)
중국 철광석 수입가: 98.8달러(WoW, -0.6%), 한국 스크랩가: 48.6만원(WoW, +0.4%), 호주 원료탄(FOB): 243.5달러(WoW, +0.2%)
 - 주요 비철금속(LME) 및 귀금속 가격(달러/톤, 온스)
전기동: 13,287달러(WoW, -1.8%), 아연: 3,483달러(WoW, -2.0%), 연: 1,871달러(WoW, -2.6%), 니켈: 16,519달러(WoW, -5.0%), 금: 4,079달러(WoW, -3.4%), 은: 59.2달러(WoW, -10.7%)
-
- 국내 철강 유통가격: 후판은 실수요량 판매 회복으로 상승 마감, 철근은 고점인식 확대로 3주 연속 소폭 하락
 - 중국 철강 유통가격: 수요 부진과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6주 연속 약세 지속
 - 산업용 금속가격: 미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되고 미달러 강세 지속하며 대부분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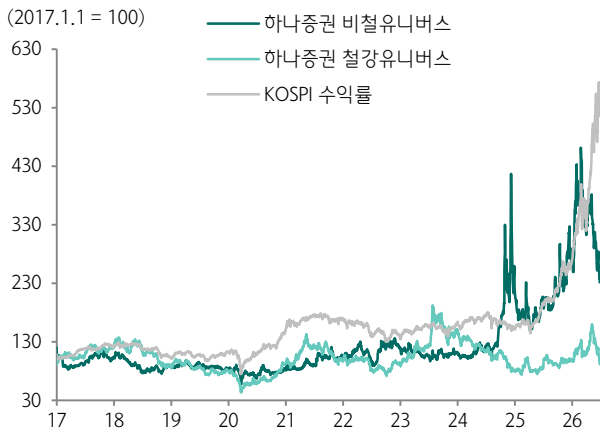
철강금속기업 주가 동향

- 국내 철강금속기업
POSCO홀딩스: 30.5만원(-14.5%), 현대제철: 2.65만원(-19.2%), 세아베스틸지주: 3.23만원(-21.3%), 고려아연: 105.6만원(-11.4%)
- 해외 철강기업(자국 통화)
BAO STEEL: 5.39위안(-5.1%), A. MITTAL: 52.52유로(-4.5%), NSSMC: 543.3엔(-2.9%), TATA STEEL: 188.71루피(-5.1%), NUCOR: 239.78달러(-1.7%)
- 총평: 중국 철강 가격 하락으로 주요국 철강사들 주가 대부분 큰 폭 하락 기록

주간 Issue & Comment

- Mysteel, 2H26 리튬가격 전약후강(前弱後強) 전망: Mysteel에 따르면 현재 건조한 다운스트림 수요와 리튬 광석 재고 감소가 리튬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해외 신규 프로젝트들의 본격화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 상승 또한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리튬 가격은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점차 강세로 전환될 것이며 회복 강도는 성수기 수요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현재 최종 수요자들의 수요는 부문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승용 전기차 판매는 약세인 반면, 상업용 전기차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상용차의 전기화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5월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58.4% 증가하며 시장 보급률이 40.1%를 기록했는데 주로 급등한 유가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6월 19일 기준 항구의 리튬 광석 재고는 소폭 감소한 반면, 트레이더들의 재고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하반기 호주와 짐바브웨로부터의 신규 공급이 유입되면 리튬 광석 공급 부족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짐바브웨의 리튬 생산자들은 현지 리튬 황산염 처리 공장 대부분이 아직 건설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를 상대로 당초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리튬 정광 수출 금지 조치를 3월 혹은 6월로 연기해달라고 집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기 요청 현실화 시, 하반기 짐바브웨발 리튬 광석 공급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3분기 말에 접어들면 전통적인 전기차 성수기 진입과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가 급격히 확대되며 리튬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KOSPI 대비 철강/비철금속섹터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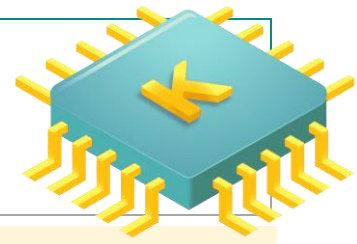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중국 철강제품별 유통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스마트폰 수요 우려는 예견된 수순



반도체 및 소부장 Weekly | 2026.6.29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및 주간 리뷰: 주 후반 불거진 수요 우려

- Micron의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되었다. DRAM 가격이 60% 이상, NAND 가격이 80% 이상 상승하며 컨센서스 및 가이던스 상화에 기여했다. 다음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는 전분기대비 약 20% 증가를 제시했다. 제한된 Bit Growth 및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가격 상승폭 제한을 감안하면, 일반 메모리의 양호한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아울러 HBM4 본격 출하 역시 Blended ASP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장기 공급 계약 관련 현금 예치 및 실적 기여를 디테일하게 공유한 점이다. 가시성 확보한 실적에 대한 멀티플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 코스피 지수는 7.1% 하락하며 한 주만에 반락했다. 삼성전자 4.1%, SK하이닉스 3.3% 하락하며 지수대비로는 선방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대비 아웃퍼폼이 지속되며, 시가총액 차이가 4% 내외로 좁혀져 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일정을 공시하며 관련 이벤트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90조원 관련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갔고, 7월 23일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퍼포먼스가 국내외 메모리 업체들대비 약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 코스닥 지수는 11.9% 하락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 5월부터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연초 이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연초 이후 하락률이 8%에 달하게 되었다. 코스닥 지수의 대폭 하락 속에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글로벌 전공정 장비 업체들과 유사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증권은 해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Micron은 다음 분기에만 100억 달러 Capex를 집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내 Capex 역시 상향 조정되었다. 글로벌 메모리 및 파운드리 업체들의 CAPEX 상황과 2027년 신규 Fab 오픈에 따른 외형 성장 가시성이 장비 업체들의 주가 차별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전망 및 전략: 수요 우려 속에 다시 불거진 매크로 이슈. 비중확대 전략 유지

- 미국과 이란의 갈등 완화 분위기가 한 주만에 반전되었다. 주말 동안 미국과 이란의 무력 갈등이 심화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지난 주 후반에 Apple의 평가 인상 소식으로 인해 스마트폰 수요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매크로 위기까지 불거졌다. 이번 주 초반에 국내외 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이후 메모리 관련 수요 우려는 3월 Google의 터보퀀트, 5월 Vera Rubin의 LPDDR 탑재량 축소설에 이어 세 번째다. Apple의 평가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이벤트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B2C 업체들은 저가 라인업 물량을 축소하거나 평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증권은 연초에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과 PC 출하량이 전년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워스트 시나리오로 20% 감소를 가정해도 공급 부족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Apple이 평가 인상 이후에 판매량이 둔화되더라도 LPDDR 공급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Nvidia의 LPDDR 구매량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 지속은 자명하다.
- 이번에도 수요 둔화와 매크로 우려가 동시에 불거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요 우려 이벤트 둘 다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는 20% 이상 하락한 바 있다. 금번에도 공교롭게 매크로 이슈가 겹치며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예상하고 있던 업황 및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한다. 주가 조정을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양호한 주가 흐름은 가시성 높은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이다. 글로벌 업체들과 궤를 함께 하는 구간에서 긍정적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표 1. 반도체 주요 종목 Valuation / Performance / 수급 동향

기업/지수	시가총액 (십억원)	종가/지수	주가 수익률			주간 순매수 (십억원)			PER (배)		PBR (배)	
			1W	1M	YTD	기관	외국인	개인	26F	27F	26F	27F
코스피	6,677,715	8,411	-7.1	4.5	99.6	-2,722.9	-16,907.7	19,148.8	8.9	6.8	2.1	1.6
코스닥	478,763	851.37	-11.9	-27.4	-8.0	752.7	929.8	-1,703.0	27.2	19.2	3.2	2.8
삼성전자	1,984,812	339,500	-4.1	13.6	183.2	-537.0	-4,022.5	4,401.7	7.6	5.5	3.2	2.1
SK하이닉스	1,905,053	2,673,000	-3.3	30.3	310.6	-675.7	-10,308.0	10,856.3	8.7	6.3	5.6	3.0
주성엔지니어링	7,697	165,600	-14.2	-29.4	497.8	36.1	36.4	-70.3	119.1	57.3	11.6	9.6
피에스케이	5,452	188,200	14.1	63.9	410.0	84.3	-39.7	-45.1	35.8	28.7	8.1	6.5
테스	3,549	183,300	10.3	44.6	311.5	62.7	-37.1	-25.6	36.0	28.6	6.9	5.6
피에스케이홀딩스	2,920	135,400	20.4	2.7	192.4	26.2	0.2	-26.0	21.7	16.6	4.8	3.9
브이엠	2,665	107,600	21.7	62.5	256.3	65.8	-54.0	-8.5	33.3	24.5	10.7	7.5
파크시스템스	1,691	241,500	-5.5	-15.7	15.6	4.5	-1.2	-3.2	32.3	25.7	5.5	4.8
씨앤티엑스	863	89,400	-13.5	-29.8	-10.5	0.1	-0.1	-0.1	13.5	10.6	3.8	2.7
원익머트리얼즈	475	37,650	-16.8	-20.7	21.8	-4.4	3.7	0.6	7.7	6.2	0.8	0.7

자료: 하나증권

Dubai의 상대적 약세와 운할기유 Shortage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 2026.06.29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Weekly Issue: Dubai의 상대적 약세와 운할기유 Shor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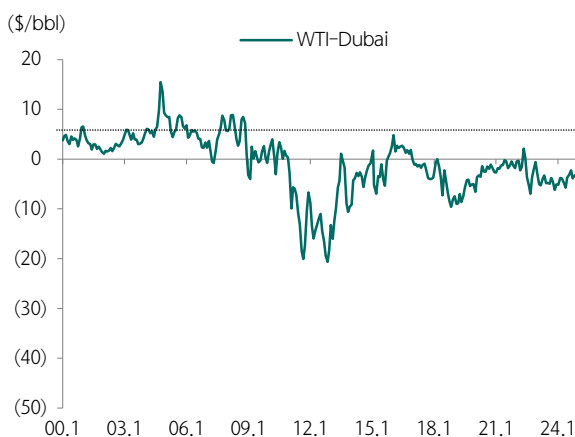
• 총평

- WTI 69.2\$(-10%), Dubai 64.7\$ (-12%). 정제마진 28.8\$(WoW +2.8\$)
- 납사 -5% Vs. PP -11%, HDPE/프로필렌/벤젠 -10%, 에틸렌/SM/BD/PX -8%, 톨루엔/PO -7%
- Top Picks: OCI홀딩스, S-Oil,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효성티앤씨, 대한유화

• Dubai의 상대적 약세와 운할기유 Shor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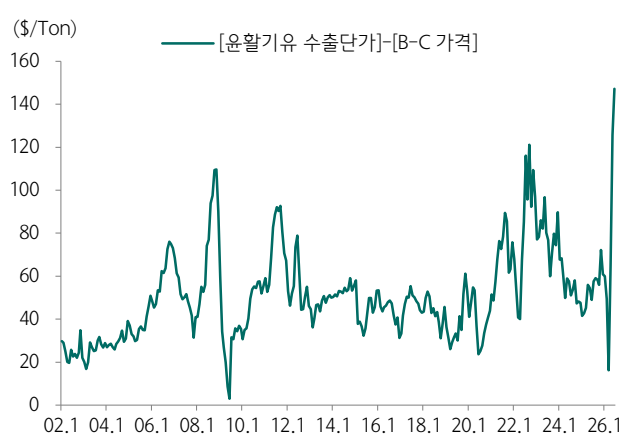
- Dubai는 WTI 대비 -4.5\$ 저렴. 조만간 사우디 OSP도 약세로 돌아설 것: Dubai는 현재 64.7\$로 WTI 69.2\$보다 -4.5\$ 저렴. 이는 약 18년 래 최대. 즉, 미국 Shale Boom 이전 정상적인 구간으로 18년 만에 되돌아간 셈. 유가 급락으로 미국 원유 생산량 Peak Out 가능성이 높아졌고, UAE에 이어 이라크 또한 쿼터 제약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OPEC 탈퇴를 암시해 중동 산유국의 가격 결정권 약화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 축소(원유 도입처 다변화)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올해 중 사우디 OSP의 마이너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 정제마진은 여전히 강세: 미국 3-2-1 정제마진은 WTI 하락에도 연중 최대치에 근접했고, 아시아 정제마진도 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 중. 미국 정제설비 가동률은 97%에 육박하고 있으며, 글로벌 재고는 여전히 낮은 상황
- 운할기유 강세도 20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 6/1~20일까지 한국 운할기유 수출단가는 원료 B-C가 MoM -2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MoM Flat. 이에 따라 운할기유 스프레드는 역대급으로 확대. 특히, Group III 수급은 중동의 설비 타격으로 매우 타이트. 중동 Group III 생산업체는 3곳(BAPCO/ADNOC/Pearl GTL)으로 글로벌 생산량의 35%를 담당하며, 미국 수입량의 46%를 차지. 한국으로부터는 27%를 수입. 특히, 카타르의 Pearl GTL은 중동 생산량의 73%를 차지(200만톤/년)하는 세계 최대 단일 생산설비. 이번 전쟁으로 Train 2가 수리에 1년 필요.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도 글로벌 Group III 생산량은 2026년 27% 감소, 2027년 상반기까지는 12% 감소 예상. 한국은 글로벌 Group III 운할기유 시장 M/S 약 40% 수준의 주요 플레이어로 반사 수혜
- 결론: 1) Duabi의 상대적인 약세가 본격 시작. 하반기 중에는 사우디의 OSP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 높아 2) 아시아 정유업체는 저렴한 원유를 기반으로 타이트한 석유제품/운할기유 시장에서 높은 마진을 창출할 것 3) 실제, 아시아 정제마진은 28.8\$로 여전히 강세이며, 미국 3-2-1 마진 또한 초강세 4) 글로벌 M/S 25%를 차지하는 카타르 Pearl GTL의 복구에 1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Group III 중심의 운할기유 마진 강세도 2027년까지 지속될 전망. 실제 6/1~20일까지 운할기유 수출판가는 B-C 가격 20% 하락에도 Flat을 기록하며 역대급 마진 시현 중. 글로벌 Group III M/S 약 40% 한국 업체의 수혜. Top Pick은 S-Oil

도표 1. WTI - Dubai유 Spread 약 18년 래 최대



자료: Petronet,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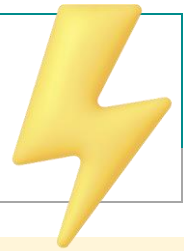
도표 2. 운할기유 스프레드 역대급으로 확대



자료: TRASS, Petronet, 하나증권

셀 메이커 흑자 전환

2차전지 Weekly < 이베속(이번주 배터리 속이야기) | Overweight | 2026.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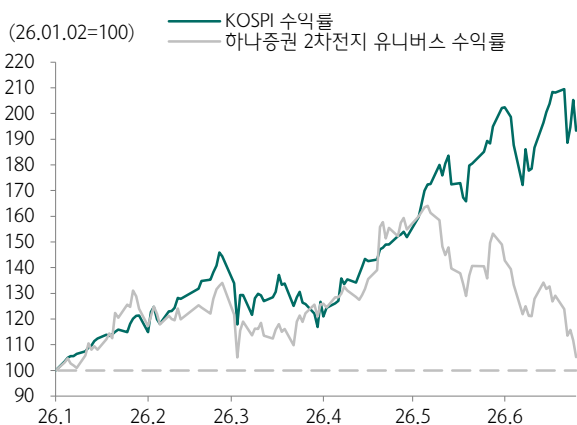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공급 이동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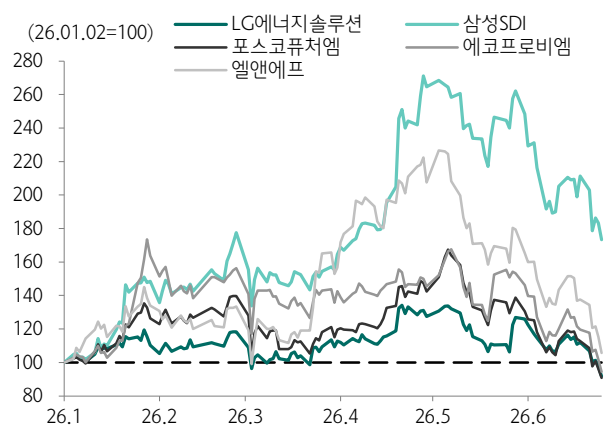
- 5월 이후 반도체를 제외한 전 섹터 하락했으나, 유난히 2차전지 하락폭이 컸다. 주요 원인은 두 가지라고 판단한다. 1) ESS 수익성 우려, 2) 리튬 가격 하락.
- 1) 1분기 LGES ESS 부분 흑자 전환 기대했으나 적자폭 확대되며 서플라이 체인 전반의 수익성 리스크 확대됐다. 후공정 팩 생산 인력 조달 문제에 기인한 적자폭 확대이므로 구조적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점진적 해소 과정에서 주가 반등 모멘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2) 리튬 가격이 kg당 24.1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최근 21.6달러까지 하락하며 고점 대비 -11% 하락했다. 산업 전반의 가격 지표인 리튬 가격이 하락하며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의 실적 추정치들은 리튬 가격 10달러 후반을 가정하고 있어, 2분기 단기 급등 이후 하락이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을 가져올 만한 이슈는 아니다.
- 결국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수익성 개선 가시성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만 하락하며 가격 매력이 커졌다. 섹터의 과매도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시총 LGES 80조원, 에코프로비엠 15조원)에 모두 도달하며 호재에 민감해지는 가격대에 도달했다. LGES와 삼성SDI 모두 연중 분기 흑전 예상되는데, 각각 1년/2년만의 흑전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예상된 흑전이지만, 지금 시총 레벨은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 반응할 만한 가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 가혹한 공급 쏠림 지속되고 있으나 언젠가 돌아올 공급 이동을 대비해야 한다. 배터리는 늘 단기간에 상승 여력을 실현해 버린다는 점에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수익성 개선 본격화되는 셀 메이커(LGES, 삼성SDI)와 하반기 IAA(유럽 산업가속화법안) 최대 수혜주인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수를 권고한다.

도표 1. KOSPI 대비 2차전지 섹터 수익률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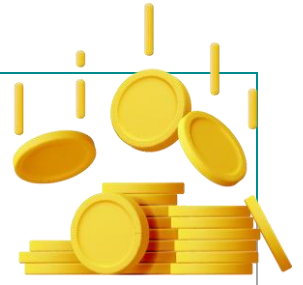
도표 2. 주요 업체 주가 추이



자료: 하나증권

토큰화 주식, 하반기 메가 트렌드 예상

디지털자산 Weekly 온체인(On-Chain) | 2026.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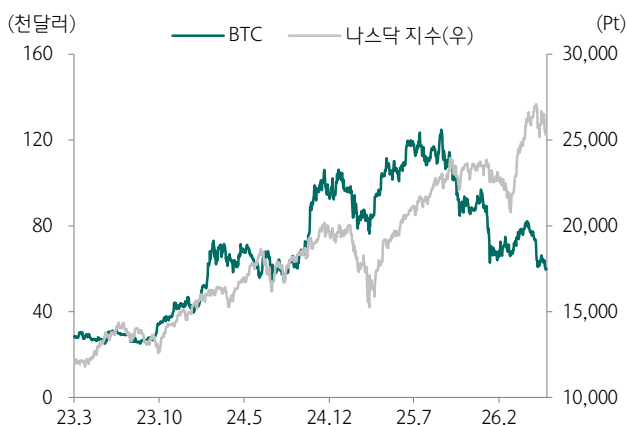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업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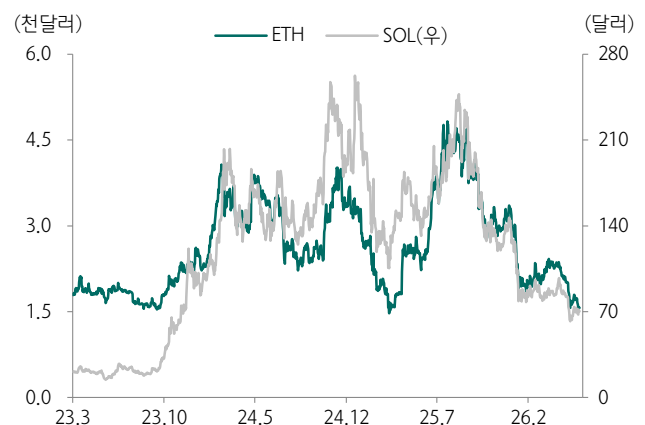
- 디지털자산 시장은 6/21~6/27 동안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주요 코인의 수익률은 BTC -5.4%, ETH -8.1%, SOL -2.9%, TRX -1.7%다. 미국 나스닥 지수의 -4.6% 하락에 동반한 모습이다. 이번 주 시장은 현물 ETF 자금 유출, 위험자산 약세, 스트래티지 자본구조에 대한 우려, 바이낸스의 유럽 규제 이슈가 겹치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억제했다.
- 클래리티 액트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트럼프 일가 윤리 조항 등을 포함하여 대립이 지속되어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폴리마켓에서 연내 통과 가능성은 41%까지 하락,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부정적임이 확인된다.
- 토큰화 주식의 트랜잭션이 폭증했다. RWA.xyz에 따르면 토큰화 주식의 트랜잭션 볼륨은 75억달러 이상으로 5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 중이다. 거래의 약 70%는 솔라나 체인을 통해 이뤄졌다. 솔라나에서 토큰화 자산 거래 부문은 일일 거래량 6.4억달러를 기록하며 DEX에서 밌코인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물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체인으로 거듭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럽 MiCA 라이선스 획득에 실패, 7월 1일부터 앱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 바이낸스 유럽 앱에서는 매매, 스와프, 보상 프로그램, 신규 토큰 론칭, 대출, 예치 등 모든 거래 서비스가 차단될 예정이다. 바이낸스는 MiCA 라이선스 취득에 전념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을 통해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거래소 기업 OKX가 뉴욕증권거래소의 모회사 ICE와 토큰화 금융상품 및 디지털자산을 위한 차세대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50대 50 지분 구조로 운영, 규제 승인을 거쳐 미국과 해외의 OKX 이용자에게 ICE 선물 시장과 NYSE 토큰화 주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아닌 토큰화 주식, FX와 같은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도 우선 제도화 이후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국내 ETF 혹은 주식에 대한 선물 상품들만 해외 거래소에서 다루고 있지만 3분기 주식을 1대1로 담보하는 토큰화 주식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7월 10일 SK하이닉스의 ADR이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이를 Ondo, xStocks와 같은 기업이 토큰화하는 움직임이 예상되며, 해당 거래를 통한 수혜는 단기간에 국내 기업으로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제도의 전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3년 BTC 가격, 나스닥 지수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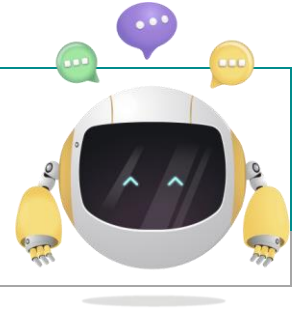
최근 3년 ETH, SOL 가격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Tech&Stock Weekly

2026.06.26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퀄컴 Investor Day 2026, 모바일을 넘어 AI 컴퓨트 풀스택 기업으로

마이크론(MU.US): SCA 서프라이즈

공급 제약, CY27년 이후에도 해소 어려워

- DRAM과 NAND 모두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 타이트한 수급이 CY2027을 넘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 AI 수요가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스마트폰, 고성능 PC, 자동차, 산업용, 로보틱스까지 확산되기 때문. CY2028부터 공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으나, 수요를 따라잡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음
- 현재 공급 제약 요인은 그린필드 fab 건설의 긴 리드타임, 숙련 노동력 부족, 인허가·규제, 전력 인프라 필요성, 메모리 공정 복잡도 상승 등. 여기에 노드 전환의 bit growth 둔화, wafer growth를 위한 클린룸 공간 증가, HBM 비율 상승이 non-HBM 공급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음. NAND는 추가적으로 일부 공급업체들이 클린룸 공간을 NAND에서 DRAM으로 전환하고 있어 공급 압박이 더욱 심한 구조
- AI 시스템 성능은 GPU/ASIC/CPU 자체뿐 아니라 메모리 서브시스템의 대역폭, 용량, 지연시간, 전력 효율에 구조적으로 의존. 또한 Agentic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가속기 랙에만 머무르지 않고, 에이전트 컨트롤을 위한 컨텍스트 저장 확대를 위한 스토리지 랙으로 확장. 이에 따라 CY2026 서버 출하량 성장률 전망을 기존 low-double-digit에서 high-teens로 상향

SCA 확대로 메모리 수요 & 가격 하방 방어

- 총 16건의 SCA(Strategic Customer Agreement)를 체결. 일반적으로 CY2026부터 CY2030 말까지 5년 계약이며, 자동차 고객 계약은 대체로 3년 구조. 현재 체결된 SCA는 해당 기간 DRAM 물량의 약 20%, NAND 물량의 약 1/3을 커버
-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SCA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음. 현재 체결된 계약에는 4개 대형 고객과 3개 중형 고객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주로 자동차 고객 중심의 소형 계약
- SCA는 take-or-pay 구조의 구속력 있는 장기 구매 계약. 대형 계약은 기존 제품에 대해 현재 시장가격 수준의 ceiling price와 계약기간 동안의 floor price를 두는 구조가 일반적. 모든 계획된 SCA가 체결될 경우 고정가 또는 이번 분기 가격에 근접한 ceiling price가 적용되는 매출 비중은 약 40%가 될 전망
- floor price 기준으로도 GPM은 과거 어떤 사이클의 분기 피크 마진보다 훨씬 높은 수준. 16건 중 14건의 계약은 최저 가격 기준 RPO가 약 1,000억 달러

체결된 SCA들로부터 총 220억 달러의 현금 예치금 및 금융 약정을 받을 전망이며, 이 중 약 180억 달러가 현금 예치금. RPO는 최저 물량, 가격 기반의 보수적 회계 수치라서 실제 인식 매출은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

퀄컴(QCOM.US): Investor Day 2026, 모바일을 넘어 AI 컴퓨트 풀스택 기업으로

중장기 재무 목표 업데이트

- AI 가속기(HBC)는 6,800억달러 규모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C1000은 2,000억달러 규모 CPU 시장을 타겟으로 함. 데이터센터 전체 TAM은 1조, FY2027 50억달러 매출, FY2029 150억달러 매출, 5~7년 내 5% 초과 점유율을 목표로 제시
- 재무 목표는 비핸드셋(데이터센터+자동차+IoT) 매출 타겟을 18개월 전 FY29 220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2배 상향. FY25→29 CAGR 40%. EPS는 FY29 18달러 이상 목표. 데이터센터 매출은 FY27 50억달러 예상.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2곳이 각각 10억달러 이상 기여할 것으로 보임. FY29 150억달러 목표. 커스텀 실리콘 매출 총이익은 전사보다 약간 낮지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전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부문은 FY29 매출 목표를 18개월 전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상향. 순수 자동차 반도체 기업 중 매출 기준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예상
- 핸드셋 비중 FY27 50% 미만, FY29 1/3로 하락 예상. 핸드셋-데이터센터-자동차-산업 IoT로 다변화 하는 것이 목표
- 장기 마진 목표는 칩 사업부(QCT) OPM 30%, 라이선스 사업부(QTL) OPM 70% 수준

통합 AI 생태계 회사로 전환 시도

- 퀄컴은 과거에는 스마트폰 중심 회사였지만, 이제는 데이터센터, 자동차, 산업, 로봇, 개인 기기까지 아우르는 인공지능 생태계 회사로 바꾸는 것이 목표
- 대표적으로 Figure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Dragonwing IQ10은 단순 통신칩이 아니라 로봇의 현장 두뇌 역할에 가까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관성 센서 같은 여러 감지 정보를 받아서 주변을 인식하고, 경로를 판단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기기 안에서 추론하는 역할을 함
-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Modular를 인수. Modular는 여러 종류의 반도체에서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을 만드는 솔루션을 제공. 퀄컴이 Modular를 품으려는 이유는 데이터센터용 칩만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최적화하는 실행 환경까지 가져가려는 것

팔란티어(PLTR:US): 유럽 공공부문 계약 이슈 부각

- 6월 25일 기준 팔란티어는 7거래일 연속 하락, 최근 1주일 17% 하락. 소프트웨어 전반センチ먼트 약화, PLTR 고밸류 부담과 더불어 개별 약재와 수급 촉매 영향이 작용.
- 1) 프랑스 정보기관 DCSI 계약 이탈 이슈. 프랑스 정부가 국내 정보기관 DCSI에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 ChapsVision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 개별 약재로 작용. 재무적으로는 큰 계약은 아니지만, “유럽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주권/국산화 압력이 커진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 2) 영국 NHS 계약 관련 정치, 규제 리스크. 영국 NHS의 7년 3.3억파운드 규모 FDP 계약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벤더 락인, 외국 기업 의존 논란이 지속. FT는 영국 당국이 2027년 계약 종료/전환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단기 실적 훼손보다는 “해외 시장 공공부문 계약의 정치 리스크”에 대한 우려 부각
- OpenAI, Anthropic 같은 모델 기업들이 정부, 공공 계약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팔란티어 전통적 강점인 정부 AI/데이터 플랫폼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
- 주가가 50일선, 200일선 아래로 밀리고 주요 지지선인 127~128 달러 부근을 깨면서 모멘텀/기술적 매도 신호 강화

스페이스X(SPCX.US): 스타폴(Starfall) 첫 시범 발사 및 배치 성공, 저궤도 화물 회수 플랫폼 시험 착수

- 스페이스X는 6월 23일 신규 무인 재진입 캡슐 Starfall의 첫 시범 발사 진행.
- Starfall은 저궤도 미세중력 환경에서 과학 연구와 우주 제조를 수행하고, 이후 결과물을 지구로 회수하기 위한 무인 재진입 플랫폼. 회사는 이번 임무의 목적을 Starfall의 제어 비행, 통제된 재진입, 태평양 착수 시험이라고 설명.
- 이번 임무는 프로그램 자체만큼이나 비공개 성격이 강했음. 스페이스X는 일반 상업 발사와 달리 Falcon 9 상단부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임무 타임라인도 1단 부스터 착륙 이후 주요 이벤트를 공개하지 않음.
- FAA 환경평가 자료에 따르면 Starfall은 두 개 구성요소 합산 약 2,100kg 규모이며 약 1,000kg의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향후 Falcon 9 또는 Starship을 활용한 추가 시험 가능성도 언급.
- 아직 초기 시험 단계지만, 향후 우주 내 제조, 제약, 국방용 신속 화물 회수 등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옵션 가치가 있는 이벤트로 판단
- Starfall은 스페이스X가 단순 발사 사업자를 넘어 “발사-궤도 체류-재진입-회수”까지 포괄하는 우주 물류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

글로벌 에너지

‘풍력발전 금지 행정명령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 철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풍력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으나 최근 입장을 번복
-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풍력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 2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연방 영해 내의 신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무기한 금지했으며 기존 프로젝트에도 작업 중단 행정명령
- 2025년 12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며 트럼프는 항소했으나, 6월 10일 다시 항소를 자진취하
- 트럼프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편애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으며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조인 Energy Expansion을 증명하는 사례



중국, 나트륨이온 배터리 대량 양산 초기 단계 진입

Hana China Weekly | 2026.6.26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CATL(300750.CH): 나트륨이온 배터리 양산 체제 구축 완료, 9월 첫 출하 예정

- 6/23 CATL은 실증 검증을 마친 나트륨이온 ESS 배터리 "Tener Sodium" 공개. 양산 체제는 이미 구축되었으며 올해 9월부터 중국 내 첫 출하 예정. 2026년 말까지 1GWh 출하 목표, 글로벌 출하는 2027년 6월 시작. 신규 ESS 배터리는 30MWh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완전 모듈형 설계 채택. 1시간부터 8시간까지 다양한 저장시간(LCOS 요구)에 대응 가능. CATL은 독자적인 양방향 전압 제어(Bi-DC) 기술을 적용, 왕복효율(RTE)을 약 2% 개선. 25°C 환경에서 15,000회 충방전 후에도 SOH 70%를 유지하며 사용 수명은 약 25-30년.
- 지난 4월 CATL은 ESS 업체 HyperStrong과 60GWh 규모의 3년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푸젠성에 50억위안을 투자해 40GWh 규모의 나트륨이온배터리 생산 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 CATL 경영진은 장기적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현재 배터리 시장의 30~40%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음. CATL은 올해 최소 1만대 규모 전기차에도 자사 나트륨이온 배터리 탑재할 계획.

알리바바(9988.HK): 반도체 설계 자회사 자본 3배 이상 확대

- 6/23 SCMP에 따르면 알리바바 산하 반도체 설계 자회사 T-Head가 등록 자본을 3억위안에서 10억위안으로 3배 이상 확대. 3년여 만의 첫 증자로, 2023년 초 1,000만위안에서 3억위안으로 늘린 이후 최대 규모의 자본 확충. 이번 증자는 알리바바가 T-Head 칩·알리바바 클라우드·Qwen 모델을 통합하는 풀스택 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강화하는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T-Head의 분사 및 외부 투자 유치 가능성도 염두에 둔 선행 조치로 해석됨. 알리바바가 T-Head 증자를 통해 국산 AI 칩 개발 의지를 자본 측면에서도 뒷받침하는 구조로, 분사 후 독립 투자 유치 가능성과 커창반 IPO 추진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음.

전기차: EU, 중국산 PHEV에도 관세 부가 준비

- 6/21 EU는 중국산 PHEV에도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이라 보도. 이는 저가의 중국 전기차 브랜드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대응 조치로 판단. EU는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BEV에만 기본 수입관세 10% 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왔음. BYD는 추가 17% 관세로 총 관세율이 27%, 지리는 28.8%, SAIC는 45.3%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담. 이런 구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유럽 수출을 BEV에서 PHEV 중심으로 전환해 왔음. PHEV에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 업체들의 유럽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마진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6.29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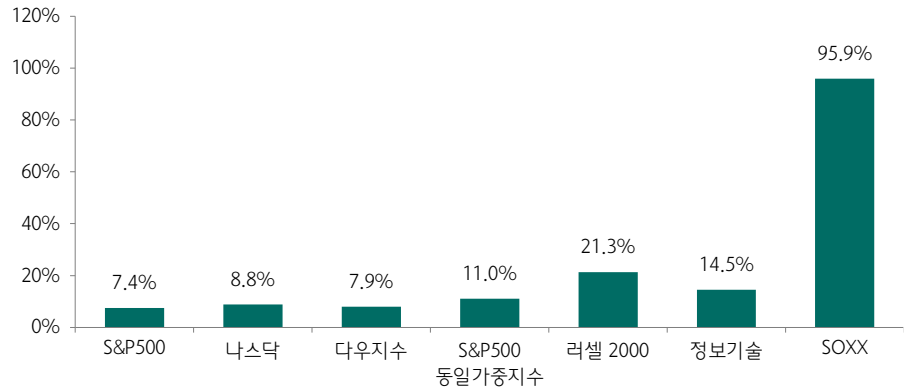
AI 반도체 변동성 확대는 쓸림의 해소 과정

마이크론 실적: 더 넓게 봐야 하는 이유

- 최근 발생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는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반도체 주시에 과하게 쓸렸던 수급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ETF인 SOXX의 연초 대비 수익률(1/1~6/26)은 95.9%로 다우(+7.9%), S&P 500(+7.4%), 나스닥(+8.8%)보다 우월하다. 반도체가 속한 정보기술 섹터 수익률 14.5%보다도 크게 상회한다. 중동 전쟁이 시작한 2월 28일 이후부터 SOXX는 67.5% 상승했다. Factset에 따르면 SOXX의 FY 2026 EPS 컨센서스는 연초 대비 43.8% 향상됐고, 5월 초 대비 9.1% 향상됐다. 반도체 기업들의 변동성 확대는 펀더멘털 측면보다 수급적인 영향이 컸을 것이다.
- 지난주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마이크론의 실적은 여전히 강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시사했다. 시장참여자들이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지난 분기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음에도 주가의 단기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크론이 FY 2Q26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약했던 이유는 업황 정점에 대한 우려였을 것이다. 사이클이 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특성에 대한 편견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 워크리를 통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한 걱정은 과하다고 했다. 근거는 강한 수요였다.
-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우려를 기대로 바꿀 정도로 양호했다. 이번 분기 매출총이익률은 지난 분기에 제시한 가이던스인 81%보다 높은 84.9%였다. FY 3Q26 매출총이익률은 86%로 제시했다. 마이크론의 생산 용량은 한정적이며, 이미 2026년분 제품은 모두 판매한 상황이다. 지난 분기 자본지출 전망 상향을 감안하면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할 수 있는 제품 대비 수요가 강해 가격이 오른 덕분에 강한 이익이 발생했으며,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FY 2Q26 자본지출 규모는 약 71억 달러로 시장 예상 수준이지만, 전년보다 166.3%, 전분기 대비 41.6% 큰 규모다. 다음 분기 자본지출 가이던스는 10억 달러로 더 확장된다. 시장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확정된 계약 기반의 증설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론은 체결된 16개 전략 고객 계약 중 14개 계약에 대해 최소 가격 기준 누적 매출이 남은 계약기간 동안 1,0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수적으로 추정된 계약 금액이 FY 2025 연간 매출 374억 달러보다 3배나 크다. 체결된 장기 계약 중 현금 예치금 및 관련 재무 약정은 총 22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약 180억 달러가 현금 예치금 형태다.
- 이번 장기 계약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메모리 3사는 2018년 플랫폼 기업들의 공격적인 자본지출 덕분에 호황을 누렸다. 메모리 기업들의 자본지출은 2017년에 가장 증가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2018년에 자본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시차가 존재한다. 2017년 마이크론은 실적 공시(10-K)를 통해 메모리 산업의 큰 변동성으로 고객들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꺼린다고 했다. 당시의 수주잔고가 향후 매출의 신뢰할 만한 지표가 아니라고도 했다. 현재와는 반대 상황이다.
- 마이크론의 증설은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닌 확정된 고객 계약에 기반한 투자다. 장비 기업 입장에서 수요 가시성이 높은 주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사이클에서 장비 기업들은 메모리 업황 피크 이후 급격한 발주 감소 및 주문 취소 등을 경험했지만 현재는 수요자가 먼저 현금을 예치하고 계약을 확정된 구조다. 강력한 수요에 기반한 마이크론의 자본지출 확대가 이어지는 한 인공지능 수혜는 메모리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장비 공급사까지 넓게 분산된다.
- 애플이 CXMT로부터 메모리를 구매 승인을 받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메모리 기업들 투자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승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허드슨연구소의 안보 전문가는 중요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중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미 전직 관리는 이것이 다른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오히려 비중국 메모리 기업의 증설을 지원할 유인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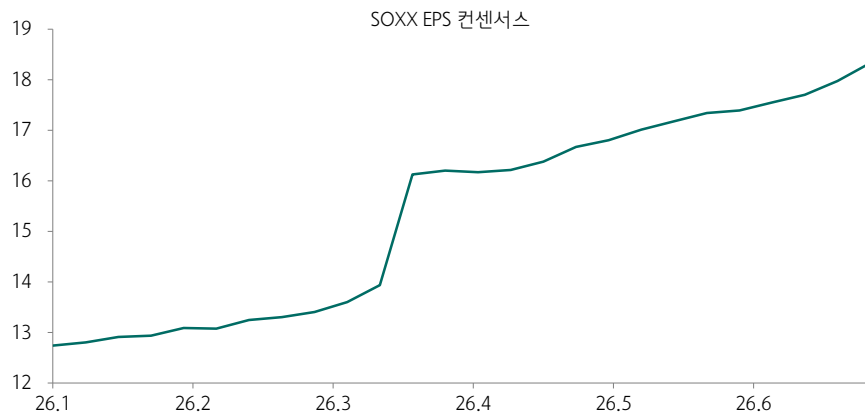
- 변동성 확대를 업황 정점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마이크론 실적은 수요 초과, 가격 결정력 강화, 장기 계약 기반의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확인해줬다. 중요한 것은 수혜가 메모리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확정 계약에 기반한 공격적 증설은 반도체 장비 기업에도 가시성 높은 수요로 연결된다. 단기 수급 노이즈를 활용한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며, 투자 대상도 메모리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장비 공급사로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도표1. (1/1~6/26) 주요지수 대비 압도적으로 수익률 높았던 SO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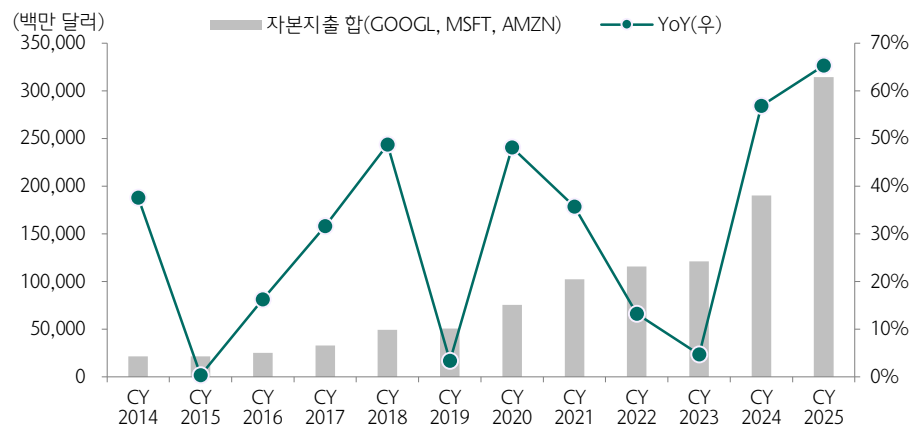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2. SOXX의 EPS 컨센서스 추이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3.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지출 합 추이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29	339,5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6/29	2,673,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KB금융 (105560.KS)	6/29	149,3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에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한화오션 (042660.KS)	6/29	98,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가 수주물량 해소와 고가 선박 매출 인식 본격화로 상선 부문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캐나다 CPSP-국내 KDDX 등 특수선 수주와 해양플랜트 발주 확대 기대감
삼양식품 (003230.KS)	6/29	1,111,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대덕전자 (353200.KS)	6/29	133,2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용 MLB와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 증가로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확대 기대 FC-BGA 가동을 회복과 자율주행·AI향 신규 수요 진입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세방전지 (004490.KS)	6/29	49,25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 세방리튬배터리를 통한 북미 전력망용 ESS 모듈/팩 사업 진출 P/E 6배 수준의 저평가와 현재 주가 기준 4% 후반의 배당수익률 매력 부각
리가캠바이오 (141080.KQ)	6/29	142,9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차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파마리서치 (214450.KQ)	6/29	324,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세포라·중국 오프라인 채널 확대, 유럽·중동 의류기기 진출로 성장 모멘텀 부각 리뷰란 브랜드 가치 기반으로 내수 의류기기 수요 견조
코스메카코리아 (241710.KQ)	6/29	66,1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 성장 지속으로 화장품 ODM 수주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대 인글우드랩 지분을 확대에 따른 연결·지배순이익 개선 효과로 실적 가시성 부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06%	+2.38%p	+74.22%	-2.7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효성중공업 (298040.KS)	6/29	3,103,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향 초고압변압기-리액터 수주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부각 2분기 미국향 고마진 차단기 물량 매출 인식과 관세 환급 가능성으로 수익성 회복 기대
삼양식품 (003230.KS)	6/29	1,111,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한국콜마 (161890.KS)	6/29	90,7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케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리가켄바이오 (141080.KQ)	6/29	142,9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삼성생명 (032830.KS)	6/22	385,500	432,500	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신세계 (004170.KS)	6/22	695,000	740,000	6.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 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테리어서날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
삼성전기 (009220.KS)	5/26	1,340,000	1,993,000	4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673,000	16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39,500	10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931,000	21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을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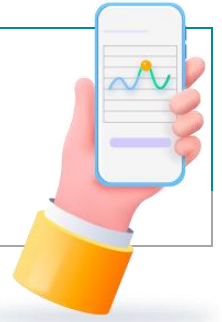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0.37%	-24.95%p	+53.78%	-23.1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기(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7,0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주 (0154F0.KS)	2026.02.24	15,160	11,400	-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투자,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2,875	2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315	3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36.88	8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76.89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32.92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88.52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28	6.29	6.30	7.1	7.2	7.3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광공업생산 (E 4.0%, 이전치 1.5%) 중국 6월 제조업 PMI (E 50.1, 이전치 50) 중국 6월 서비스업 PMI (E 49.9, 이전치 50.1) 일본 5월 실업률 (E 2.5%, 이전치 2.5%) 미국 6월 CB 소비자기대 (E 94.3, 이전치 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수출 (E 60.6%, 이전치 53.2%) 한국 6월 수입 (E 23.9%, 이전치 20.8%) 중국 6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52, 이전치 51.8)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E 53.8, 이전치 54.0) 유로권 6월 CPI (E --, 이전치 3.2%) 유로권 6월 근원 CPI (E --, 이전치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CPI (E 3.2%, 이전치 3.1%) 미국 6월 실업률 (E 4.3%, 이전치 4.3%) 유로권 5월 실업률 (E 6.3%, 이전치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6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4.4) 	
7.5	7.6	7.7	7.7	7.8	7.9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지수 (E --, 이전치 51.3) 유로권 5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1.0%) 유로권 5월 PPI (E --, 이전치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수출 (E --, 이전치 2.6%) 미국 5월 수입 (E --, 이전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116.1) 일본 5월 동행지수 (E --, 이전치 1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6월 PPI (E --, 이전치 3.9%) 중국 6월 CPI (E --, 이전치 1.2%) 일본 6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5%) 미국 6월 기준주택매매 (E --, 이전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PPI (E --, 이전치 6.3%)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